

보도시점 2025. 5. 30.(금) 15:00
< 5.31.(토) 조간 >

배포 2025. 5. 30.(금)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한다

- 충전 전(全) 과정 무인화.. 무선충전 완료 후 자동으로 주차공간 이동
- 수소연료전지 탑재 무인잠수정 및 이동형 발전기 실증.. 군(軍) 첨단화 가속
-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총 66건 승인.. 누적 832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전기차 자동주차 및 충전 후 이동주차는 「자율주행자동차법」상 가능하며, 실증특례는 무선 자동충전에 대해서만 적용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위치 발각 우려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유 은 (044-203-4520)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4-203-4523)



□ **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목적) 규제특례 신청안건 심의·조정 (근거: 산업융합촉진법 제8조)
- (위원구성) 위원장(산업부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심의기간) '25.5.23(금)~5.29(목) (서면심의) → 5.30(금) 의결
- (의결안건) 실증특례 65건, 임시허가 1건 ☞ 가결
 - * 규제특례 연장승인 결과 보고 등 기타보고안건 5건 포함

□ **심의과제 목록**

분야	기업(기관)명	과제(안건)명
모빌리티 (2건)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충전 실증
	캠버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 캠핑카 공유 중개 플랫폼
수소 (7건)	국방과학연구소	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실증
	기아차 등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의 개발과 운용 실증
	비티이 등 2개사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부산대 등	수소 운송선박 적용 액체수소 화물창 단열 성능평가 시험 플랫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무인수상선 실증
	현대자동차 등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실증
국민생활 (57건)	삼성전자*	가칭소비자 경험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코스맥스바이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에스씨케이컴퍼니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 서비스
	펫헤븐더웨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담다 등 51개사	반려동물 동반출입음식점
	유메이드헤어	공유미용실 서비스
	임시허가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제품출시 세부사항 확정 후 실증내용 공개 예정

** 아카이브코퍼레이션는 특례기간(2+2년) 경과 후 법령정비 요청에 의해 임시허가 전환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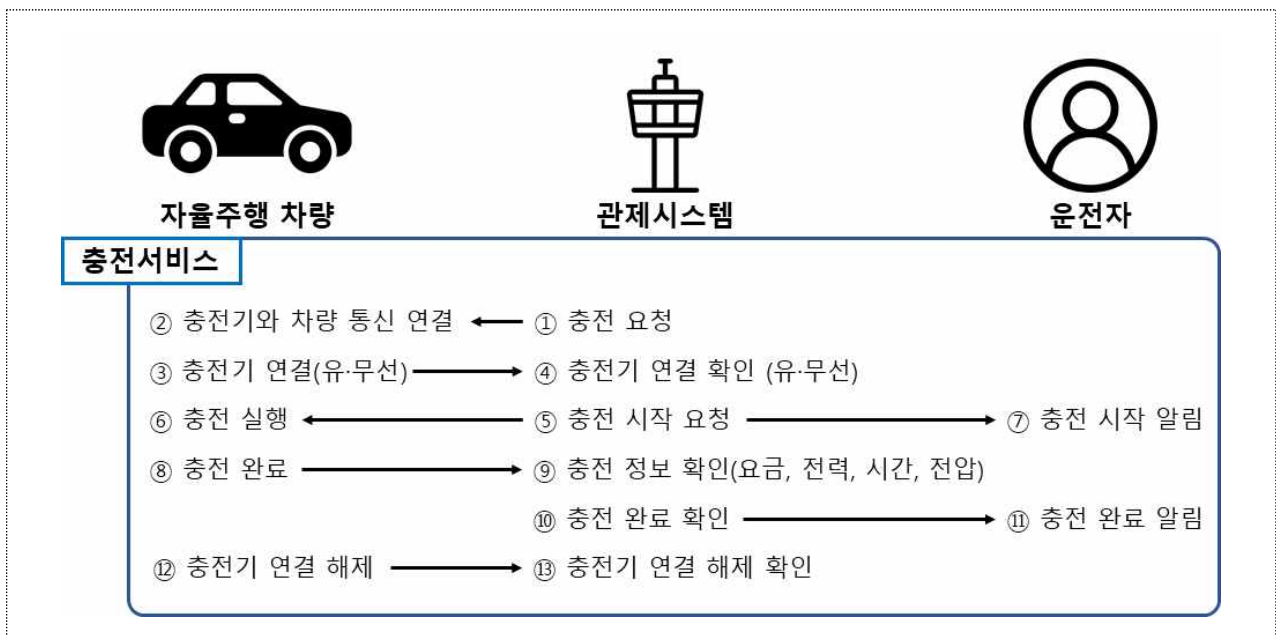
과제별 상세내용

①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자동 충전 실증

→ 충전도 주차도 무선 자동으로! 미래형 전기차 인프라 실현

-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은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 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을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희 공간으로 이동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 본 기능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송전패드에서 차량 하부 수신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10kW급 무선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하차한 후 모든 과정을 비대면·자동으로 처리한다.

< 실증사업* 개요 >



* 자율주행차 자동 주차 및 충전 후 이동 주차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상 가능하며, 실증특례는 무선 자동 충전에 대해서만 적용

-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하다.
- 위원회는 무선 충전의 기술혁신성, 이용자 편익 및 안전성 확보 계획,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전기차 무선 충전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련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②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 캠핑카 공유 플랫폼 서비스 사업 실증
→ 캠핑카 이용자와 소유주 모두에게 경제적 편의 제공

- 캠버는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의 캠핑카를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유휴 캠핑카를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인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 2종 보통 운전 면허증, 운전경력 1년이상

< 실증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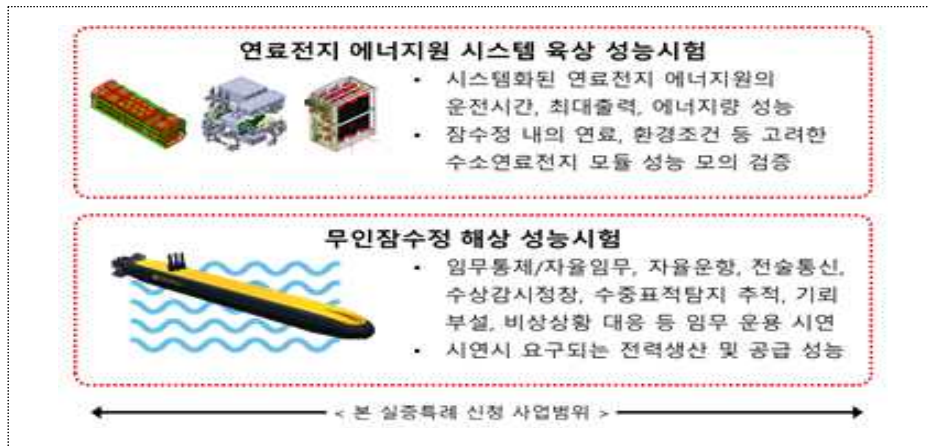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차량대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이 임차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대여·알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위원회는 캠핑카 이용자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점, 유휴 캠핑카의 사용가치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 (부가조건) 중개플랫폼을 통해서만 캠핑카를 대여할 것, 신청기업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할 것, 캠핑카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등
- 동 실증과제를 통해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무인잠수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 실증

→ 경쟁력 있는 방산 기술 확보 및 K-방산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

-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무인잠수정의 육·해상 실증을 통해 연료전지 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및 무인잠수정의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수소법」상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압가스법」상 대용량 수소저장용기는 수소 운송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무인잠수정에 설치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 위원회는 실증 결과에 따른 무인 잠수정의 확장 가능성, 경제성, 잠항 능력 개선 기대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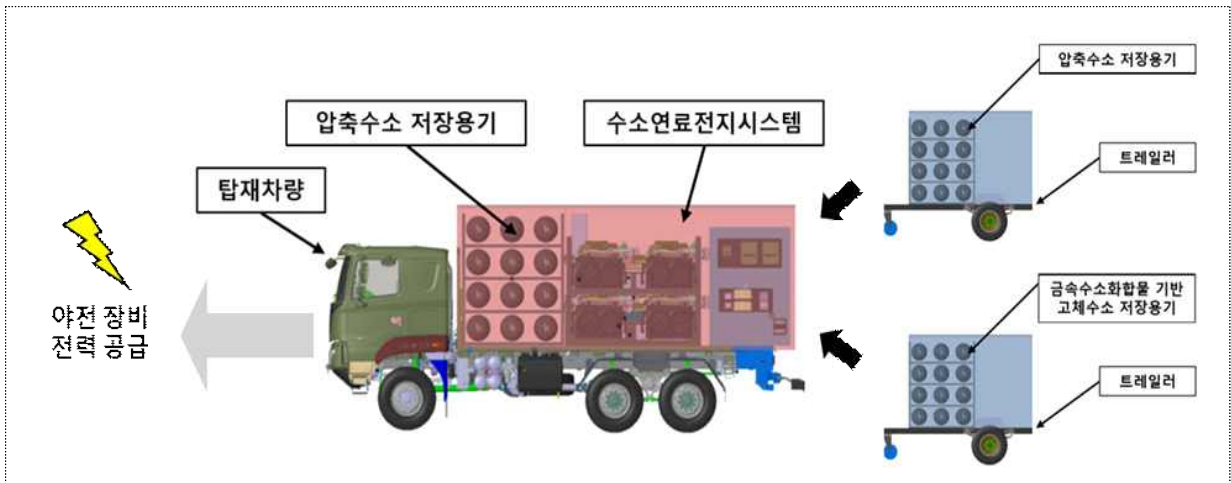
* (부가조건) 실증 종료 후 실증 활용 용기 폐기 및 자체 검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부가조건 이행

- 동 실증과제를 통해 해상 무기 체계를 확대하고 첨단 방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K-방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④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및 확장식 수소공급장치 개발·실증
 → 국방분야 수소기술 상용화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

- 기아·현대자동차·롯데케미칼·유니투스 컨소시엄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차량탑재) 및 트레일러형 확장식 수소공급장치를 개발·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관련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압가스법」상 실증대상 수소저장용기를 수소 자동차용 저장용기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에 사용할 수 없다.

○ 위원회는 군 분야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필요성, 저소음*, 야전·비상 상황에서 유동적 전력 공급 가능성 및 산불 등 재난지역 등에 신속한 전력 공급 수단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60dB 수준 (일상 대화 수준, 디젤 발전기의 경우 95~110dB 전후)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성평가 실시 등

- 동 실증과제를 통해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수소 기술로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및 산간·도서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 **친환경 전환 촉진 및 국산화 추진**으로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

- 비티이는 수소용기와 수소연료전지를 연계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관련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위원회는 디젤발전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소음 저감, 충전 및 급유에 들어가는 시간 절감 등 실증제품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 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와 이동형 발전기의 장점을 접목한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하고, 실증제품의 안전 검사 기준 등 관련 규정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⑥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 친환경·무탄소 전력 생태계 조성 및 수소산업 수요 창출에 기여

- 호그린에어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차 충전, 캠핑장 등 전력망이 미비한 환경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이동형 소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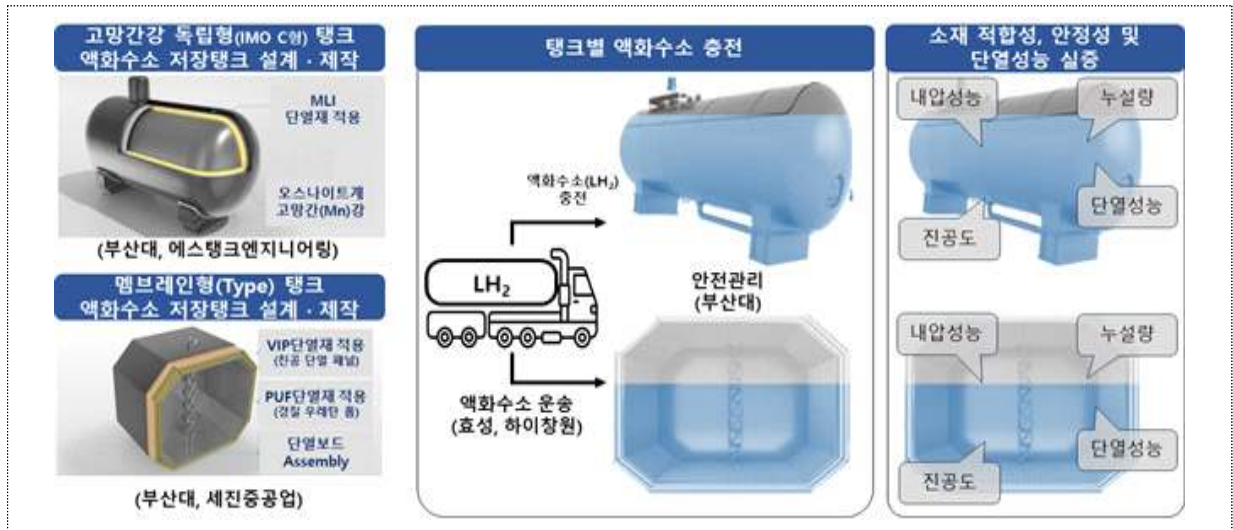


- 현행 「수소법」 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제조·검사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사업법」 상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력 거래가 원칙상 금지되어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 위원회는 디젤발전기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 소음 저감 등 실증 제품의 장점 및 전기사용자 전력 직접 공급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 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발전사업 허가 취득, 송·배전설비 이용 없이 직접 판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 후 직접 운영, 사업계획 외 타 목적 전기 판매 불가 등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 취약지역에서의 수소 기반 전력 공급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기존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저소음 이동형 전력 공급 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소 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수소 운송선박 적용 액체수소 화물창 단열 성능평가 시험 플랫폼
 → 액체수소 저장 기술력 확보 및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여

□ 부산대학교, 삼성중공업,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에스탱크엔지니어링, 수립테크 컨소시엄은 대용량 액화수소 운송선박에 탑재할 액화수소 화물창과 단열재의 성능을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고압가스법」상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시설·기술·제조 등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및 성능 시험을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대용량 액체수소 수입을 위한 운반선 핵심기술 확보, 저장탱크 단열재 최적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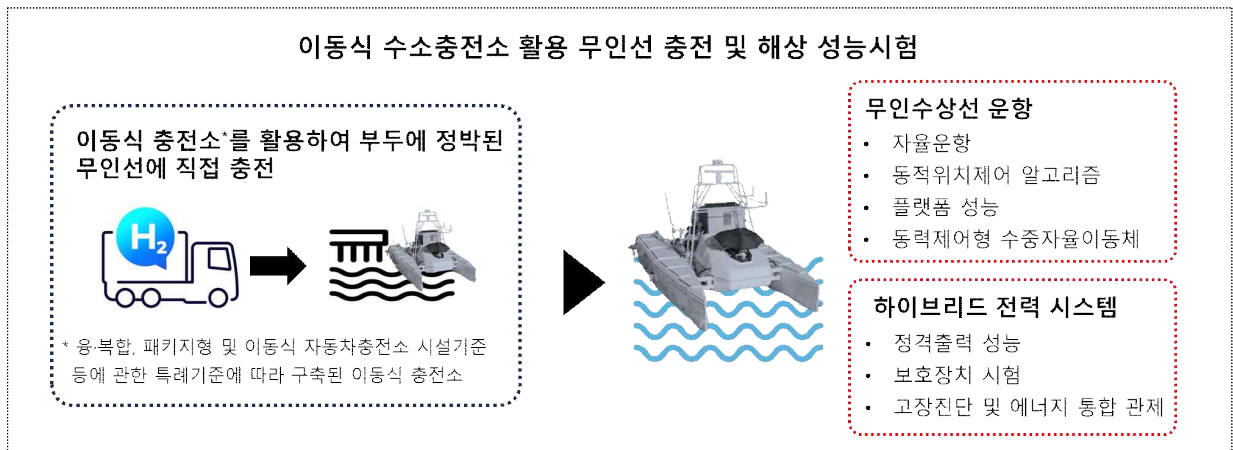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선박용 액체수소 저장용기 설계·제작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액체수소 기반 수소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무인수상선

→ 친환경 해양 산업 전환·촉진 및 해양 무인 체계 확산에 기여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현대자동차, 한영테크노캠 컨소시엄은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을 사용하는 무인수상선의 수소충전 안전성과 성능을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수소법」상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안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격제어를 통한 자율운항 시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 지휘 등 선장의 의무 관련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

○ 위원회는 기존 내연기관 대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연료 활용 확대 및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자체 검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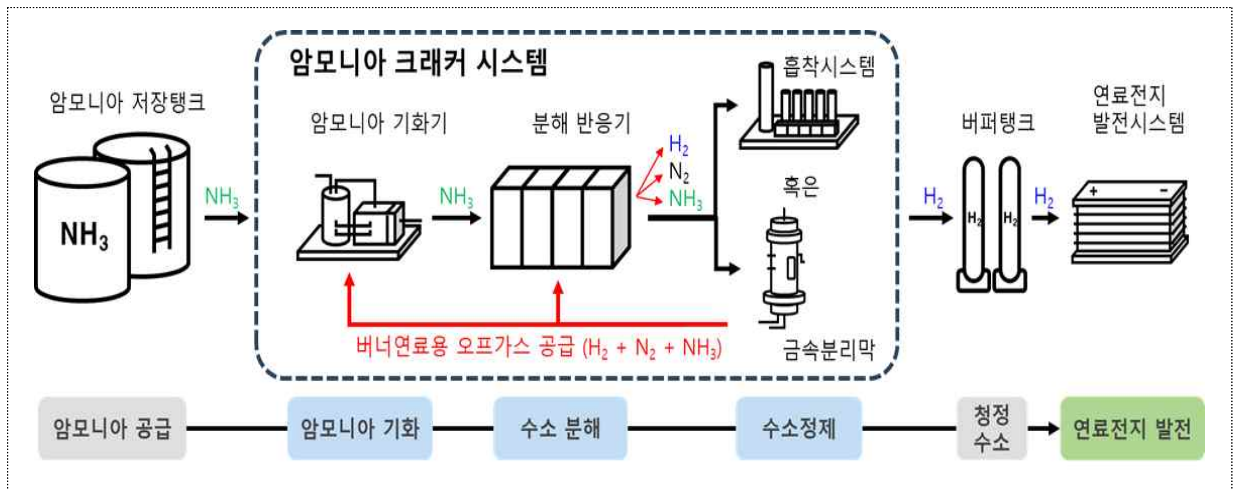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준 마련 및 무인수상선 자율운항 기술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⑨ **암모니아 활용한 수소생산설비 구축 및 연료전지 연계**

→ **고효율/고순도 생산 기술 확보 및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여**

□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 현대로템 컨소시엄은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추출 설비의 구축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연계를 실증한다.

< 실증 사업 개요 >



□ 현행 「고압가스법」상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수소추출설비의 제조·검사기준 등 관련 기준이 없어 제작 및 성능 시험을 할 수 없다.

○ 위원회는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기반 친환경 수소 생산방식의 효과성, 대용량 수소 운반·생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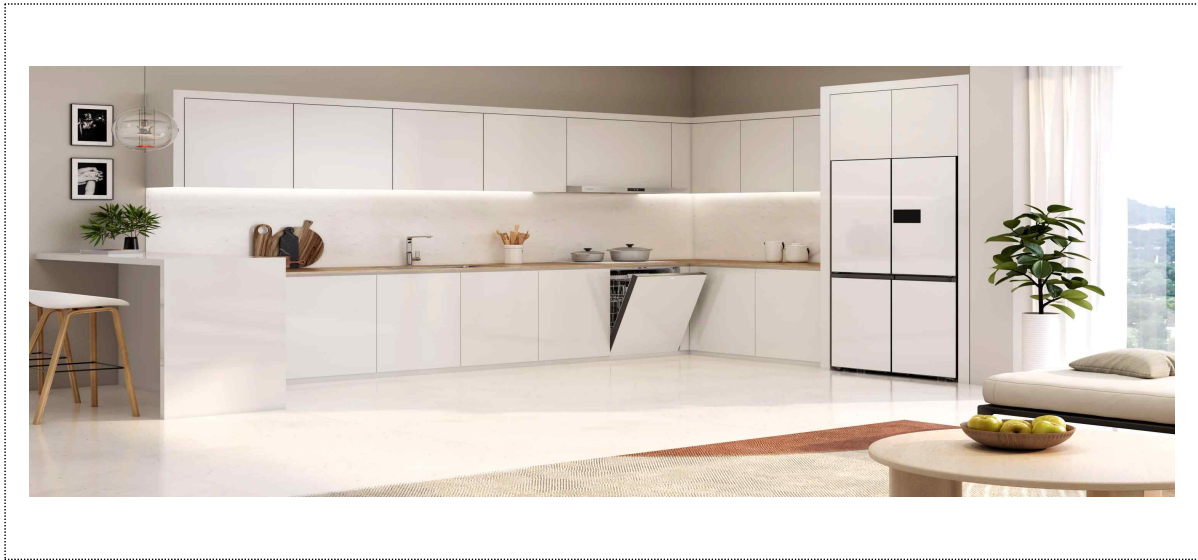
* (부가조건) 실증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자체검사 실시 등

□ 동 실증과제를 통해 암모니아의 특성(독성, 부식성)을 반영한 수소추출 설비의 제조 및 운전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추출 기술의 저변 확장 및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⑩ [가칭] 소비자 경험확대를 위한 혁신 주방가전 실증

*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요청에 따라 제품출시 세부사항 확정 후 공개 예정

- 삼성전자는 수요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주방을 더욱 혁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제품을 실증한다.



- 현행 법령을 본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신청기업은 규제특례를 신청하였고,
 - 위원회는 안전한 환경 하에서 시험·검증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 동 실증으로 소비자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주방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⑪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실증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하세요!

- 코스맥스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간편 섭취할 수 있도록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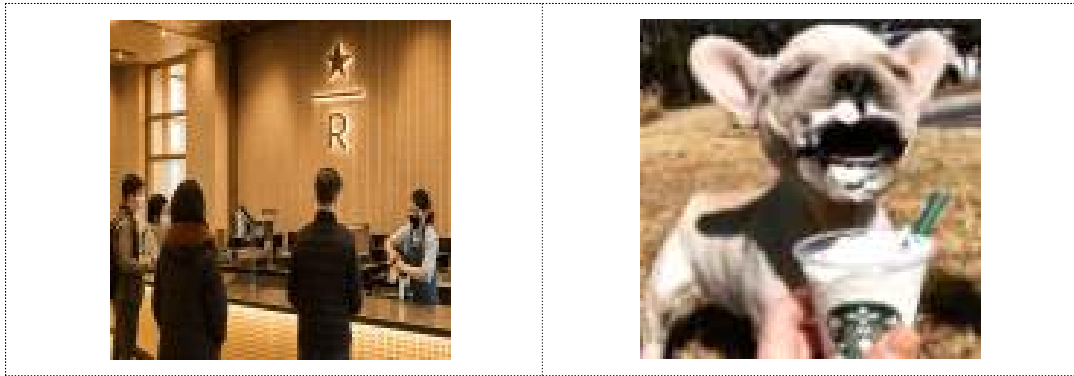


-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위탁 제조 가능하다.
- 또한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각각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에 정해진 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 신청기업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제품의 편의성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 (특례조건) 제조·판매와 관련한 안전성·품질 확보,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 등
- 동 과제를 통해 1회분으로 소분된 건강기능식품의 간편한 휴대·섭취로 소비자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⑫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제공
→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및 반려동물 시장 활성화 도모

- 에스씨케이컴퍼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서 반려동물용 음료를 제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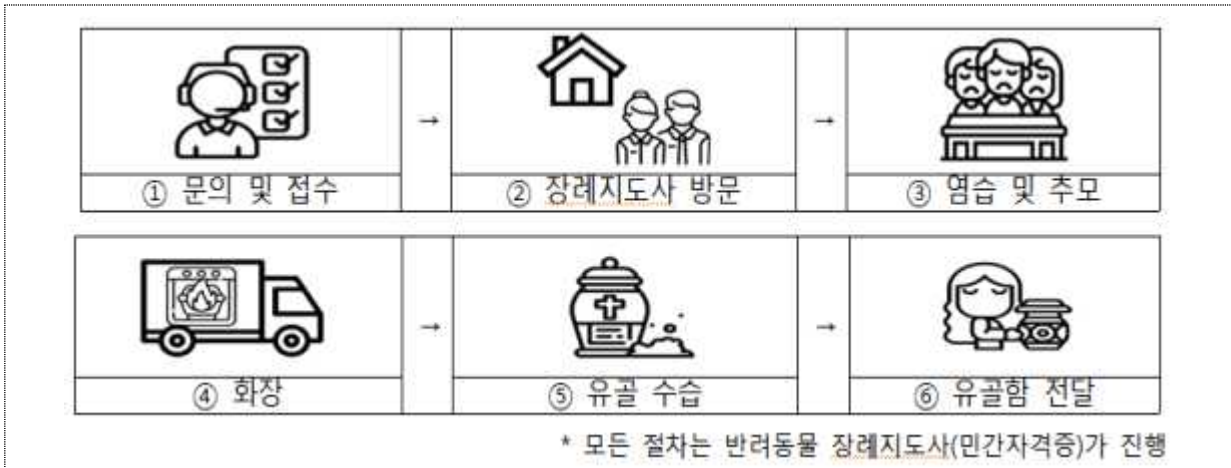


-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용 음식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하고, 「식품위생법」상 사료제조로 사용되는 시설은 식품접객업 시설과 벽·층 등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신청기업은 이미 성분등록이 완료된 펫밀크를 휘핑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위원회는 반려인의 반려동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 (특례조건)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시 전용 공간 구분 및 별도 조리도구 사용, 사료 성분 표시의 매장 내 게시 등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펫푸드 관련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⑬ 이동형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실증 추진
→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 기여

□ 펫헤븐더웨이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후,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화장하는 서비스를 실증한다.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프로세스 >



□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하여 이동식 장례시설을 통한 동물장묘업 허가 취득이 불가하다.

*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움

○ 신청기업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장례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승인했다.

* (부가조건) ①동물장묘업이 설치된 시·군과 설치지역 내 반경 20km이내 지역에는 설치 제한, ②서비스 제공 지역 지자체 협의·합의 후 지정 장소에서만 화장 등

□ 화장 서비스를 이동식으로 구현한 新서비스인 만큼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반려인의 편의성 증대 및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⑭~⑮ 반려동물과 카페 등 음식점 동반출입 실증

→ 반려동물과 카페에서 함께 데이트 하세요!

- 담다 등 51개社は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하여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불가하다.
 - 신청기업은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여 안전성 검증을 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위원회는 식약처가 제시하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 영업장 출입구 등에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기록관리, 반려동물 매장 내 이동금지, 식품취급시설 반려동물 출입 차단 등

< 반려동물 동반출입 프로세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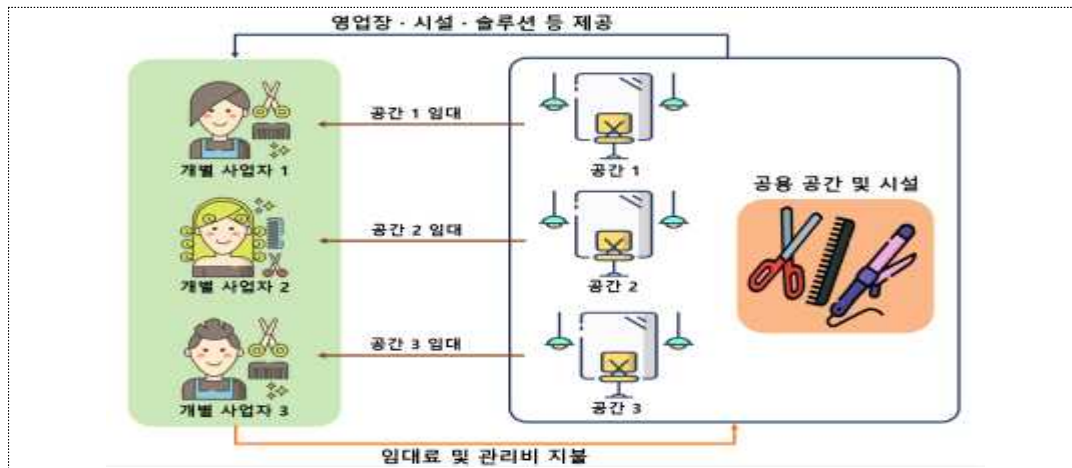
- 동 과제를 통해 반려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 등 펫-휴머니제이션 시대에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편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65~66 공유미용실 실증

→ 미용시설 공유를 통한 창업 리스크 절감

- 유메이드 헤어는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 미용사업자가 입주하여 시설·설비를 공유하여 미용업을 제공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 공유미용실 서비스 구조 >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사업장 내에서 2명 이상 영업자가 미용업을 하는 경우 각각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별도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용시설·기기 등을 공유하며 영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 신청기업은 고가의 미용시설·기기 등을 다른 미용 영업자와 공유할 경우 미용실 창업·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위원회는 미용사들의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 (부가조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입점 미용사의 미용업 영업신고 등

- 동 과제의 실증을 통해 미용실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은 공유미용실에 대한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법령 정비 요청에 의해 임시허가로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